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4월 재개되나

엔데믹 시국, 안전 교육 강화한다

도교육청, 새학기 안전체험관 활용 학생 교육 확대

마을회 “새협의체 구성해 제주도와 타협점 찾을 것” 도 “마을회 상황 고려”... 시공사, 3월까지 공사 보류

환경파괴 등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로 5년째 중단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4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시공사인 대저건설은 “제주도의 요청을 수용해 3월 말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4월부터는 다시 공사에 나설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월정리마을회는 제주도에 “새로운 마을 내 협의체 구성과 대화 준비를 위해 3월 말까지 증설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신 마을회는 이런 요구를 수용하면 3월 말 이후부터 마을회 단위의 집회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제주도는 월정리마을회 제안에 대해 “주민 반대로 5년 가량 공사가 착공되지 않는 상황과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된 상황 등을 고려하면 당연히 증설 공사는 추진돼야 하지만 마을회 내 비상대책위원회 해산과 새 협의체 구성 등 변화 상황을 고려해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

다만 제주도는 3월 말 이후엔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며 4월부터는 공사를 재개하겠다고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장현 월정리 이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3월 말 이후엔 증설 공사를 전적으로 찬성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면서도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며 계속 대치 상황을 이어갈 수도 없어 제주도와 대화하며 타협점을 찾을 요량으로 새 협의체 구성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이번 주안에 제주도와 대화에 나설 새 협의체 구성이 마무리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관심은 남은 기간 마을 스스로 내부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지에 모아진다. 월정리마을회가

지난달 19일 임시총회를 열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반대 운동을 주도해 온 비대위를 해체하기로 결정하자 기존 비대위 인사들은 “적법하지 않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이번 논란이 마을 내 갈등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동부하수처리장은 제주시 동부권역(조천읍~구좌읍) 생활 하수를 담당하는 시설로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유입 하수량이 시설용량의 98.9%에 육박해 용량 초과에 직면했다.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 용량을 1만2000t에서 2만4000t으로 두 배 늘리는 증설 공사를 2017년 9월부터 시작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공사 중지와 재개를 반복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주춤했던 체험형 안전 교육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제주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체험형 안전교육을 각종 학교에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최근 폭설,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한 대비와 함께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 밀집 인파 사고 예방 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2020년 문을 연 제주안전체험관 활용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지난해에는 도내 46개교 학생 6600여 명이 해당 체험관에서 각종 안전교육을 체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학교관리자 대상 안전 체험 교육이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참가자들은 화재·구급 등 2개 코스를 직접 체험하며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행동하는 법 등을 익혔다.

현행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에서는 재난안전교육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7개 영역의 학생 안전교육을 매년 51차시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교직원들은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로 소방 등과 협력해 안전 교육을 체험하고 있지만 별도로 조성된 종합 안전체험시설을 통해 안전 역량을 더욱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sunny@halla.com



눈밭에서 먹이찾는 꽃사슴 무리 지난 4일 제주도 용강동 제주마방목지에서 흰점무늬가 선명한 꽃사슴 70여마리가 먹이를 찾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꽃사슴들은 유입종으로 농장에서 사육하던 꽃사슴들이 우리에서 탈출하거나 90년대에 의도적으로 방사한 이후 번식한 개체들로 보인다.



소방당국이 지난 2일 발생한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한라봉 보관 창고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

한라봉 보관 창고서 화재 4000kg 소실 5200만원 피해

서귀포시 소재 한라봉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52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8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의 한라봉 보관용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만에 진화됐다.

불은 창고 인근 주민이 연기와 화염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당국은 장비 13대와 의용소방대 등 인원 46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내부에 보관된 한라봉 4000kg과 농기계, 저온 저장고 등이 불에 타며 소방서 추산 5200만원의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인쇄공장 화재 6000만원 피해

지난 4일 오후 7시19분쯤 제주도 화북2동의 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12분 만에 꺼졌다.

없었지만 공장 일부 6.6㎡와 인쇄 기계 1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0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제주해역서 불법조업 中어선 나포

고등어 등 수산물 불법포획 “혐의 인정되면 담보금 부과”

허가 없이 제주해역에서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이 적발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4일 오후 3시15분쯤 제주도 환경면 고산리 차귀도 북서쪽 195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A호(승선원 16명)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

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A호는 허가 없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와 고등어 등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해 조업 규모 등 자세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관리단은 A호의 불법조업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담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상민기자 hasm@halla.com

야간시간 교통사고 잇따라... 2명 중상

야간시간 제주 도심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 3일 제주소방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5분쯤 제주시 용담1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신주와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소방당국에 의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고 자발순환을 회복, 병원으로 옮

겨졌다. 경찰은 A씨가 운전 중 의식을 잃었다는 차량 동승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2일 오후 8시59분쯤에는 제주도 연동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윈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 향, 껍질 벗기기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리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호)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궁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 제라몬** 향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걸로 평가되는 품종.
-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2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산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하늘, 팔삭, 세이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문의: 010-922-2020-3)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점!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사전에예약 주문생산 탕빛1호, 선경, 설봉미, 미니몬,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총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묘목

유라조생	2~3년생
유라실생	5년생
천혜향	3~5년생
황금향	3~5년생
한라봉임	3~6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온주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탐라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귤평	3년생
진지향	3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3년 봄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윈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라향, 탕빛1호, 병유자, 아마나스, 레몬, 탕자(1년생 300원, 2년생 400원)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배니(궁천변이), 유라실생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생 본당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귀리 850-6번지 (평화로 서귀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르도르본))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묘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